

오순절 후 열세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3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8월 2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56 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새 51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4 번 잠언(Proverbs) 3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야고보서 (James) 4:11-17	장경국 집사
찬 양 Anthem	"감당 못할 내 주 은혜"	찬양대
설 교 Sermon	“신앙을 삶으로 (9) –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김일선 목사 (Living out Your Faith – You Never Know Tomorrow)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07 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새 45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보다는,

마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도를 행하는 자가 되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후 7:10, 약 1:2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글개역 **약4:14**)

“Yet you do not know what your life will be like tomorrow. You are just a vapor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away.” (NASV **James 4:1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22 (주일)	8/23 (월)	8/24 (화)	8/25 (수)	8/26 (목)	8/27 (금)	8/28 (토)
본문	삼상14 롬12 렘51 시30	삼상15 롬13 렘52 시31	삼상16 롬14 애1 시32	삼상17 롬15 애2 시33	삼상18 롬16 애3 시34	삼상19 고전1 애4 시35	삼상20 고전2 애5 시3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8/25수 오후7:30)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후11:1-15)
토요 새벽기도회(8/28토 오전6:3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시49:12-20)

지난 주일(8/15) 말씀

신앙을 삶으로 (8) – “하나님께 순복하라” (약 4:1-10)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서로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는데, 1)첫번째 부류(약4:1-5)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써, 이들을 가리켜, ‘싸우는 정욕(욕심)을 좇아 사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세상과 벗된 사람들’ (심지어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2) 두번째 부류(약4:6-10)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로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가까이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1)첫째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이고(약4:7), 2)둘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것이며(약4:8), 마지막 3)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약4:9-10). 특별히, 성경에서 ‘낮추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의미는 (단지) “겸손하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고, “죽으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참고, 빌2:5-8), 이는 우리가 낮아져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낮아져야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또한) 낮아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죄악된 삶, 하나님과 멀어졌던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